

오세철 “내년부터 모든 프로젝트에 AI에이전트 적용”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2025 AI 데이’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
3년내 전영역 AI중심 업무 지능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AI 네이티브’ 건설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업무 프로세스와 임직원의 의사결정이 AI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AI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는 전 영역에 AI 중심의 업무 지능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AI시대, 건설을 새로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AI 데이(Day)’를 개최하고, AI 프로젝트의 성과와 글로벌 산업 동향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AI를 통한 전사 혁신 비전을 제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열린 ‘2025 AI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

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AI관련 임직원, 삼성물산의 AI 혁신 파트너사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코리아 김윤식 엔터프라이즈 총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사장은 환영사에서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업에서 AI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AI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ENG혁신실장 소병식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기술 발전 현황, AI의 역설과 이유, AI를 통한 삼성물산의 혁신 방안 등을 소개했다.

소 부사장은 AI혁신의 3대 키워드로 ▲지식의 축적: AI를 단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고유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문가’로

육성 ▲능동성 확보: 환각 현상이 필연적인 수동적 AI가 아닌 먼저 질문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AI파트너 구축 ▲관점의 전환: 외부의 기준으로 AI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삼성물산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AI 가치 측정·개선 등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데이터팀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업체 AWS와 공동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3대 프로젝트 성과를 소개했다. ▲방대한 분량의 입찰제안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AI-ITB 리뷰어(Reviewer) ▲법무/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돕는 AI-계약매니저(Contract Manager) ▲흠어진 현장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AI-프로젝트 전문가(AIPEX) 등의 시연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

을 보여줬다.

AWS 김 총괄은 “글로벌 기업들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AI와 회사의 복잡한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보안정책 등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의 3대 AI에이전트 프로젝트는 AWS가 바라보는 글로벌 AI 성공전략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2025 AI 데이’에서는 AI 네이티브 건설사로 진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개발한 AI-ITB 리뷰어 등 AI 에이전트를 내년부터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등 향후 3년간 단계별 AI 전환을 추진해 건설업 전 영역에서 AI 중심으로 업무 지능화를 구현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현금부자 ‘로또청약’ 잔치… 트리니원에 8만명 몰렸다

당첨되면 20억~30억 시세차익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237대 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에 8만명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만 되면 20억~3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2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가능한 청약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7대 1로 집계됐다. 230세대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접수했다. 타입별로는 전용 84㎡B의 경쟁률

이 531대 1로 가장 높았고, 접수건수로는 59㎡A가 2만5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86대 1이다. 276세대 모집에 총 2만3861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9825명, 869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1109번지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506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223세대 ▲59㎡B 129세

대 ▲59㎡C 26세대 ▲59㎡D 78세대 ▲84㎡A 14세대 ▲84㎡B 29세대 ▲84㎡C 7세대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직결됐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이 라고 하지만 인근 시세가 평당 2억원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다만 9.7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을 들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올해 8월 42억 5000만원, 전용 84㎡의 경우 최고 7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안상미 기자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강홀에서 열린 ‘광화문글판 35년 북콘서트’에서 신창제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35주년

시민이 뽑은 베스트는

장석주 시 ‘대추 한 알’

“석화, 책임있는 자구노력 시 금융 지원”

》 2면 ‘생산적 금융에…’서 계속

◆ 특사경 역할분담 재설정 필요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인지수사는 고소고발 조치 없이도 수사기관이 불법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효율적인 조사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선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권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들도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법체계와 관련해 역할분담의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 법무부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수사부분과 조사부분에서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설계해야

하는지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큰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금융권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회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종류에 얻은 나프타(중질 가솔린)를 800도의 열로 분해해 각종 산업의 기초소재가 되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에너지·화학 자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대형 나프타분해센터(NCC)와 프로판탈수소(PDH) 설비를 공격적으로 신·증설했다.

정부는 3년내 업체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산산업단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NCC 통합을 위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4000억 규모 모펀드 출범

그룹 관계사 6곳, 年 1000억 출자
4년 간 총 4조 이상 자펀드도 결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집중 투자

하나금융그룹은 6개 관계사가 참여한 모펀드 출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한 첨단산업(ABCDEF)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및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사장단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2026년 그룹 경영계획 워크숍’에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 주제로 선정,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의 조기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자문

용, 하나벤처스 등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 6곳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그룹 관계사 6곳에서 내년 부터 매년 1000억원씩 출자해 4년간 총 4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4년간 총 4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사 중 하나벤처스가 모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는 정책출자기관이 선정한 벤처펀드와 매칭 출자해 국가 전략 첨단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AI, Bio, Content s, Defense, Energy, Factory)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에 조성한 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광화문글판 35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고, 시민이 직접 뽑은 ‘베스트 광화문글판’을 발표했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2만2500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문안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견디며 익어가는 인내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민의 일상에 다정한 위로로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 문학인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미디어 아티스트 염동균 작가의 VR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 베스트 글판 시 낭송, 기념 도서 북토크, 가수 요조의 공연이 이어졌다. 35년간 광화문글판의 철학과 여정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가진 힘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창제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35년 동안 광화문글판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벗으로 자라났다”며 “IMF와 환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절에도 광화문글판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